

제2장 2 차 산업

1. 광업

1) 보령지역의 부존 지하자원

보령지역의 1912년부터 1983년까지 설정된 광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석탄관련 광업권이 전체 265건 중 123건으로 46.4%를 차지하여 단연 으뜸이고, 다음은 금·은·아연광 45건(17.0%), 석면 25건(9.4%), 규석 24건(9.1%), 규사 22건(8.3%), 활석 기타광(9종) 26건(9.8%)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령지역의 부존 지하자원은 금·은·아연·석탄·흑연·규사·석면·규석·활석 등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지하 자원 광업권 설정현황(1912년~1983년)

단위:건수

합 계	금·은·아연	석탄·흑연	규 사	석 면	규 석	활석기타(9종)
265(100%)	45(17.0%)	123(46.4%)	22(8.3%)	25(9.4%)	24(9.1%)	26(9.8%)

2) 금 광

(1) 금·은·동 자원의 분포

보령지역에는 표에서 보듯이 청소면, 천북면, 청라면 지역에 많은 금·은·동 광권이 설정 되었으며 기타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 금·은·동·아연 광업권 설정현황

단위:건수

계	대 천	주 포	오 천	천 북	청 소	청 라	남 포	웅 천	미 산
45	2	3	2	9	17	6	1	2	3

(2) 보령지역의 금광 개발

보령지역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금화정책으로 금광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20년대부터 금광 개발을 시작, 천북면 하만리의 만리금산(滿里金山), 천북면 낙동리 빙도의 보령금산(保寧金山), 청소면 죽림리의 삼응광업소(三應鑛業所)에서 사금광산(砂金鑛山)을 운영한 것을 비롯, 주포면의 봉당리, 청소면의 성연리·정전리·재정리·진죽리 일대, 청라면의 향천리, 웅천읍 대창리(절골), 대천의 화산동·남곡동 일대에 금광이 개발되어 운영되었다. 이렇게 금광이 운영되었던 곳에는 지금도 “금구데기”라는 지명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지표상에서 개발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채굴 중인 금광은 하나도 없다.

3) 석탄광

(1) 보령의 석탄산업

보령탄전은 1931년 일본인 시마무라(島村)가 대천, 남포, 부여, 홍성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탄맥의 분포도를 작성함으로써 그 매장이 확인 되었다. 그후 1948년 한국인 장순각 씨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광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그후 이필용씨가 청라면 의평리에서 영보탄광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광산 개발에 착수하여 1952년 2개 광구의 광권을 설정하였다. 보령탄전은 주로 성주산 일대의 청라, 대천, 남포, 미산(성주)을 중심으로 분포된 436.5km²의 탄전에 단위 광구 209개를 등록하였고, 그 중 70여 개를 개발 운영하여 연간 15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약 10%를 점하기도 하였다.

석탄 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보령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기간산업이었으나 1995년까지 모두 폐광조치되었다.

지역별 석탄관련 광권 현황

단위:건수

계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23	7	3	5		4	19	10	16	9	50

(2)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과거 석탄은 국민의 기본 연료이며 산업동력의 원천이었다. 그리하여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육성하여 왔으나 점점 탄맥이 심층화되고, 질 또한 떨어져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1985년경부터 서서히 정리에 들어갔다. 1986년 석탄 산업법 제정으로 비경제적인 광산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1987년에는 광산정리 시행 기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창립, 총체적으로 전 사업장에 대한 정리 방침을 세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합리화 자금을 지원한 후 폐광 조치했다. 당시 지원금으로는 사업자에게는 그간의 채탄 실적에 의하여 폐업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밀린 임금 외에 퇴직금, 실직 위로금, 이사 및 구직비, 생활 안정금, 특별 위로금, 재해 위로금, 전업 훈련비, 학자금 등 명목으로 개인별 실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1989년 4월 15일 영보광업소 금풍탄광을 시작으로 합리화 조치에 들어간 사업은 1995년 11월 15일 심원탄광을 끝으로 48개 광산이 문을 닫았다. 이로써 50여 년간 보령지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석탄 산업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 연도별 폐광 대책비 지원상황

단위:백만원

합 계			1989년			90~91년			92~95년		
광산수	근로자	지원액	광산수	근로자	지원액	광산수	근로자	지원액	광산수	근로자	지원액
48	4,797	50,341	20	2,003	19,229	16	2,161	22,784	12	633	8,328

○ 폐광 대책비 지원상황(총괄)

단위:백만원

탄광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대책비지급일	지급금액				채광	
					근로자	사업자	복구비	계	인가일	소멸일
합계										
89년계	20	20	2003		11,716	6,110	1,403	19,229		
영보금풍	최말영	청라라원산20	17	89.04.15	63	34	18	115	850304	890705
보령원진	박종무	대천동298	65	89.07.19	261	223	47	531	860411	890609
영보	김두성	청라의평산13	722	89.07.28	5,175	2,168	365	7,708	810730	890728
태화	김진웅	미산봉성산86-4	109	89.07.28	646	482	110	1238	760721	890728
태화오성	신동식	"	16	89.07.28	96	155	11	262	820430	890715
영보상보	정성훈	대천동116-6	39	89.07.29	210	139	63	412	840308	890705
동명대진	김진성	청라라원산20	31	89.07.29	217	143	26	386	820325	890701
덕수덕성	김찬원	성주면성주리	164	89.08.02	593	250	162	1,005	850201	890629
개화기본	노홍래	성주개화산74	18	89.08.02	62	94	11	167	820325	890628
영보태광	조성옥	성주면성주리	198	89.08.09	1,183	467	82	1,732	820325	890714
원풍	이춘우	성주성주산39	181	89.08.17	1,068	606	75	1,749	870112	890817
신평	김인회	미산도화담산2	68	89.08.18	283	274	116	673	810730	890818

652 • 2차산업

성림동광	황성진	청라향천산18	46	89.08.29	182	93	29	304	830314	890609
영보원보	이남규	성주성주산38	29	89.08.30	164	69	17	250	850805	890713
대보성보	구창희	성주성주산39	9	89.09.01	36	121	9	166	830321	890726
보성중보	정화훈	성주개화산74	53	89.09.01	224	103	72	399	830420	890804
덕수덕흥	박종무	성주성주산39	87	89.09.02	349	307	93	749	820330	890804
영보흑보	조원생	청라의평산13	71	89.09.29	499	145	71	715	870616	890906
대룡	김두현	웅천두룡	21	89.11.17	121	159	14	294	890212	891117
성림금곡	조태행	청라향천산18	59	89.11.20	284	78	12	374	830310	891013
90~91년계	16		2,161		16,204	4,102	2,478	22,784		
성태	전완근	청라면	196	90.05.17	1,279	260	597	2,136	881203	900321
영보서원	이영식	청라의평산13	204	90.05.17	1,198	345	57	1,600	870731	900321
영보삼광	손승식	"	18	90.05.17	162	82	18	262	890731	900321
경원동림	김재현	성주면	77	90.09.29	316	86	94	486	880211	900608
세풍홍명	한명규	남포봉덕227-1	27	90.09.29	141	42	13	196	820325	900507
원풍건일	이춘우	성주성주산29	20	90.09.29	119	79	47	245	851128	900803
월산대월	신흥섭	청라라원	57	90.11.02	369	162	112	643	830420	900721
영보태전	김상건	성주성주산39	26	90.11.13	253	68	29	350	830216	900930
동룡선풍	신지순	대천동288-104	27	90.12.13	138	80	33	251	850227	901026
석공신성	신현주	성주성주리	1,072	91.02.11	8,379	1,768	1,096	11,243	830610	901116
세풍신창	최창용	명천동산5-14	27	91.02.12	139	48	10	197	870804	900522
삼풍삼보	조경형	성주성주산39	91	91.04.01	432	105	118	655	861110	910103
대보	신부철	성주개화리	177	91.09.18	1,910	491	128	2,529	810730	910820
세풍풍산	문겸무	동대동산41	27	91.09.19	181	40	39	260	841015	910801
우성	박종무	성주면	20	91.11.14	103	270	14	387	890215	910803
삼풍	신현주	청라라원	95	91.12.04	1,085	176	73	1,334	810730	910920
92~95년계	12		633		5,861	1,799	668	8,328		
경원	최재영	성주성주산37	210	92.01.29	1,705	279	110	2,094	810730	911221
영보대봉	박연식	성주성주산37	44	92.01.29	514	57	41	612	870919	911217
영보동보	전완근	청라의평산13	72	92.06.16	790	286	50	1,126	870429	920229
개화	박해병	성주개화산74	48	92.09.05	185	113	44	342	620420	920507
청곡	박윤근	청라향천	21	92.10.06	104	41	18	163	550910	920801
보광	박유진	웅천평리산169-2	7	92.11.12	36	100	13	149	830114	921001
보성	신재봉	미산도화담312	95	93.01.19	906	455	45	1,406	610729	921121
성림	김종식	성주성주	107	93.01.20	1,075	182	271	1,528	820730	921130
보덕	김현숙	웅천수부산24	9	93.05.07	41	124	22	187	891011	930323
신흥	전영원	미산풍계	25	94.08.31	139	91	25	255	810730	940714
대신	박영호	미산면	22	94.09.09	101	41	29	171	810730	940706
심원	김태현	성주성주산39	45	95.11.15	265	30		295	841207	941028

(3) 보령 석탄박물관

대체산업을 육성할 겨를도 없이 폐광 조치되어가는 주력 산업 현장을 접하면서 당시 보령군에서는 50여 년 역사의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석탄박물관을 건립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박물관 건립 계획서를



석탄박물관

만들어 1991년 5월 8일 동력자원부에 제출하고 건립비 지원을 건의하여 1992년 1월 동자부에서 사업비예산을 확보하여, 산하 기관인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으로 하여금 박물관을 건립토록 하였다. 이에 사업단에서는 설계를 마치고 1992년 12월~1994년 10월까지 공사를 마친 다음 1995년 1월 16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5년 2월 20일 보령시에 기부채납하였다. 1995년 4월 14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박물관 등록을 신청, 1995년 5월 18일 전국에서 최초로 석탄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보령 석탄박물관은 성주면 개화리 114-4번지 국도변에 있으며 총 부지 면적은 25,164㎡ (7,612평), 건축 연면적은 1,722.14㎡(520평)로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스텔라에 걸면을 F.R.C 덧씌움 공법으로 암벽 모양을 꾸몄으며 1,000여 평의 야외전시장과 3,652㎡(1,100평, 주차능력 130대)의 주차시설을 갖추어 준공때까지 국비 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그후 부대 시설로 국비 3억 원을 들여 냉풍터널 300m(582.14㎡, 176평)를 추가 시설하고, 다시 시비 3억 원을 들여 석탄 생활관(전시공간 93.3㎡, 유도로 82.8㎡)을 건립하였다

박물관은 내부 전시관과 외부 전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내부 전시관은 안내의 장, 탐구의 장, 발견의 장, 참여의 장, 확인의 장, 체험의 장 등 역사성, 사회성, 경제성 등을 강조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물은 광물 표본류와 각종 장비 등 총 3,890점이다.

박물관 전시물



탐구의장



발견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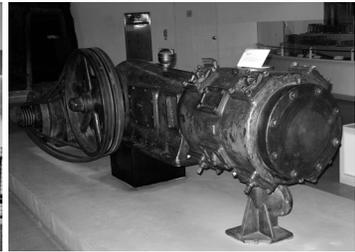
확인 의 장



궤차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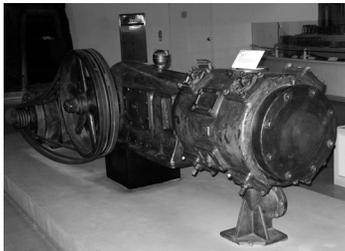
연탄생산



개인안전장구



연탄보일러



양수기



착암기



야외전시(권양기)

4) 기타 광산

기타 광업으로는 남포·주산·미산 지역의 규석, 오천면 원산도·삼시도·호도와 남포면 해안 일대의 규사, 청소면·오천면·천북면 지역의 석면·활석이 분포되어 있어서 국지적으로 개발 생산하여 왔으나 경제성이 떨어져 채굴이 중단되었다. 현재 보령지역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것은 남포면 양항리 742-1번지 소재 규사광으로, 우진광업에서 그동안



남포면 양항리 규사광산

월 5,000~7,500톤을 생산하여 인천·부산 등지의 판유리 공장, 주물 공장 등에 납품하여 오다가 2008년 7월 (주)에스엠테크(대표 유병성)에서 인수하여 남포면 양항리 수석농산 소유 토지까지 사업구역을 확장하여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규사, 규석, 석면, 활석, 고령토 등 12종 광업권 현황

단위:개소수

계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97	2	6	29	4	11	5	10	8	12	10

광산물 생산 현황

광종 : 규석(규사), 단위 : M/T

년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량	237,107.0	465,629.0	91,194.0	81,141.0	99,590.0	85,297.0	3,911.0

2. 석공예 산업

1) 보령 특산 석재(오석, 애석, 청석)

보령은 예부터 돌의 고장이다. 옛 남포현 지역인 웅천, 청라, 미산, 성주 지역에서 나오는 검은 빛의 사암은 석질이 단단하고 흡수율이 낮아 잘 깨지지 않으며 검은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비석 등을 제작하면 풍화에 강하여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남포오석(藍浦烏石)’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남포 해안가 및 섬 지역에서 나오는 애석(艾石)은 미정질 화강암으로 역시 풍화작용에 강하며 갈면 희고 푸른 빛이 나는데, 비석 이외의 석제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 한편 청석(靑石)으로도 불리는 흑색 세일은 벼루를 만드는 데 사용 되었는데, 이 세일은 층리로 이루어져서 마모율이나 강도에 따라 벼루돌 또는 벼루의 뚜껑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우수한 돌로 만들어진 벼루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예부터 ‘남포벼루’로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우수한 석재의 산지였기 때문에 보령 지방은 석재산업이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보령지역은 역사적으로 돌을 가공하는 석공장(石工匠)을 많이 배출하였고 각종 석제품 역시 질이 좋기로 유명하였다.

2) 석재 가공업의 발전 과정

(1) 맥을 이어 온 보령의 석공업

석재 가공 산업은 주로 원석으로 쓰이는 오석(烏石)과 애석(艾石, 쭉돌 또는 쭉석)의 산지인 웅천과 남포 지역에서 시작되고 발전하여 온 것으로, 초기에는 망치와 정, 췌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수한 석질의 돌을 만나거나 노두를 발견하면 적당한 크기로 금을 긋고 정으로 구멍을 뚫어 췌기를 박아 망치로 쳐서 떼어내 다시 정과 끌로 다듬고 마모석으로 갈아서 제품을 만들었다. 제품은 주로 생활 필수품으로 곡식을 가공하는 돌확에서부터 매펀, 돌절구, 돌메(우리 고장 사투리 : 매펀)등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인근 지역의 희망자에 공급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석공업은 석불, 석탑, 석등, 비석 등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크게 발전해 왔다.

현재 오석으로 된 비석은 성주사지의 국보8호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가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비가 세워진 통일신라 시대부터 석공업이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령지역의 석공업은 18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원석 산지와 가까운 지역이었던 남포면 월전리와 웅천읍 수부리에서 석제품을 만들었는데, 월전리의 경우 경주이씨(慶州李氏)가 1650년경부터 살기 시작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오면서 이들 중에서 석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제 말기에는 120호 중에 100여 호가 석공업에 종사하였다.

(2) 근현대의 석공업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석공업도 기계화가 되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 묘비석을 중심으로 한 석공예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기계화가 진행되었다. 이때 보령지역의 석공업은 과거의 원석 산지인 월전리나 수부리보다 전기가 공급되는 웅천 대천리지역에서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원석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 데는 절단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원형의 톱날 끝에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붙여 동력으로 톱을 돌려 돌을 절단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가 사용되고 있다. 또 돌에 천공(穿孔: 구멍을 뚫음)할 때 쓰는 에어툴, 돌을 깎거나 다듬는 그라인더, 돌의 표면을 자연스럽게 다듬는 버너램프, 등이 있는데 특히 소형 에어툴은 돌에 글자를 새기고 정교한 조각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돌을 쪼는 핀의

끝 부분에 당가루라는 금속을 처리하여 강도를 높여 돌을 조각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석공업에 기계가 도입되면서 생산 능력 또한 크게 증가하여 늘어나는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충족하는 대규모 석공장이 등장하였다. 특히 우수한 석질과 정교한 기법으로 제작된 보령 지방의 석공예품을 일본인들이 선호하면서 일본식 납골 묘비석이 제작되어 대량으로 수출길에 올라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웅천 대창리 동일교역(종업원 112명), 성주 개화리 대한석재(종업원 120명), 청소 죽림리 서진트레이딩(종업원 78명)이 80년대 석재 수출 기업으로 연간 7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값싼 석제품들이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고 일본인들도 발길을 중국으로 돌려 보령산 석제품 수출길이 끊기게 되었으며, 원석인 애석은 아예 산출이 안 될 뿐 아니라 오석 원석도 일부 사유지에서 채취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 그나마 고갈된 상태다. 급기야 발빠른 업체들은 중국에서 원석을 수입 해다가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제는 아예 중국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령 석공업이 맥을 이어 발전하려면 우선 양질의 원석을 확보하는 일인데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심하여 원석 채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에서 보듯 토석(사) 채취 허가 내역 거의가 토목, 건축용이고 공예용도 조경석을 다듬는 용도로 채취하고 있을 뿐이다.

토석(사) 채취 허가 상황

2008. 8월 현재

허가구분	용도	세부내용	허가건수	면적
계			22	87
토석채취	토목	토목, 건축, 공예, 쇠골재, 도로포장 바닥재	19	83
토사채취	토목	복토용(농경지, 쓰레기 매립장, 발전소 회처리장)	3	4

(3) 석공예 제품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석가공품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발전하여 왔는데 8·15 해방 이후 주로 생산되던 것은 묘비석이였다. 초기 장비가 없을 때에는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의 민 비석이 고작이었으나 교통 및 장비의 발달과 함께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조상 묘역을 치장하기 위한 비석의 수요도 급속히 늘어났다. 비석도 좌대와 갓석을 갖추어 정교한 조각으로 가공하고 크기와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어

졌으며 부대 시설로 상석과 망주석, 심지어는 장명등과 동자석, 문관석까지 옛 고관택 묘역에서나 볼직한 것들을 묘역의 치장품으로 만들어쓰고 있다. 그리고 매장할 때에도 돌로 관(棺)을 만들어 쓰고, 봉분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둘레석을 설치하는 등 묘역 정화를 위한 다양한 석제품이 생산되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장묘 문화의 변천에 따라 제품들도 납골묘(지상식, 지하식)와 같은 것들이 생산되는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 새로운 사찰들이 늘면서 불교용품인 석불, 석탑, 석등 등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정교하게 석재로 제작되고 있다. 그 외에도 문패, 꽃병, 화분, 돌항아리 등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과 각종 장식품을 조각하고 납골묘지 조성을 위하여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장묘석들이 등장하고 있다.

석재 가공업체 현황

읍면별	업체수	주 생산품	근로자수	비고
계	67		173	
웅천읍	56	비석, 상석, 갯석, 망주석, 납골묘, 묘 둘레석, 경계석, 조경석, 건축용 판재, 기타 석공예 제품	135	
청소면	1		8	
남포면	2		3	
주산면	1		3	
성주면	7		24	

2008. 08. 현재

3) 벼루 제작업

(1) 보령지방 벼루돌의 특징

보령 지방에서 벼루돌로 사용되는 흑색 세일(점판암)은 보령시 성주산 일대 남포층군(藍浦層群)의 퇴적암(堆積岩) 층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사암, 화강암에 비하여 석영, 장석, 운모의 비율이 낮고 탄질물의 비율이 아주 높다. 따라서 압축강도, 인장강도, 전단강도가 약하고 흑색을 나타내어 오석(烏石)이라고도 하는데 공극율, 흡수율, 마모율도 사암 화강암에 비하여 3배쯤 높다. 벼루는 마모되면서 바닥에서 붕망이라고 하는 미세한 돌기가 자사자생(自死自生)하여 먹이 갈리게 되며 좋은 벼루는 붕망이 가늘고 치밀하고 예리하여 먹이 곱게 잘 갈리고 먹물을 흡수하지 않아 오래도록 마르지 않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령지역에서 산출되는 벼루가 예부터 좋은 벼루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주산에서 산출되는 백운상석(白雲上石) 또는 백운진상석(白雲眞上石)으로 불리는

남포석(藍浦石-성주산이 옛 남포현 지역임)은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일반 세일과 달리 두껍게 형성되어 잘 깨지거나 터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옛날부터 널리 알려진 명품 남포석 벼루의 원석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서유구(1764~1845)는 성주산석이 중국의 단계석(端溪石)이나 흡주석(翁州石)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했고, 이규경(1788~?)도 성주산 화초석이 우리나라 제일이라고 했으며, 정약용도 성주산 수침석을 제일로 꼽았다. 그리고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 김정희 선생의 벼루 세 개 중에 2개가 남포석임을 볼 때 보령 벼루들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2) 벼루 제작업의 발달과정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택리지(擇里志), 남포읍지(藍浦邑誌) 대동지지(大同地誌) 등에 기재된 남포벼루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보령의 벼루 제작업은 17세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된 벼루 산지는 출토되는 벼루 파편이나 노인들의 증언으로 보아 보령시 화산동과 인근의 청라면 향천리 지역으로 일제시대 이 지역에는 50여 호가 벼루를 만들었으며 화산동의 송병요(宋秉堯 1876-1935)씨와 그 문하에서 기술을 습득한 김갑룡(金甲龍 1904-1972) 씨가 대표적인 장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생산된 제품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남포벼루 중 82%가 장방형으로 연당(硯堂), 연지(硯池), 연측(硯側)을 갖춘 형태이다. 연측에는 장인의 취향에 따라 매화, 용 등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일제 시대에는 수요가 늘면서 학생용 민벼루가 많이 생산되었고 일부 조각 벼루가 주문 생산 되었다.

(3) 벼루공업의 현대화

1970~80년대에 들어와 국내 벼루 수요의 증가와 일본 수출 등으로 벼루 제작은 기계화하여 공장형태의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 원석의 수요도 많아져서 많은 원석산지가 개발되었다. 남포오석 벼루들의 산지인 백운사 근처에서의 벼루돌 채취가 불가능해져서 원석의 산지가 청라면, 성주면, 미산면, 부여군 외산면 등지로 광역화되었으며 주로 험준한 중생대 퇴적암 지대의 산사면에서 생산되었다. 당시 보령 지방에서 원석을 채취하는 업자는 6명 정도로 모두 벼루 생산까지 겸하였으며 자가수요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

생산업체는 주로 시장성이 좋은 시내 동지역에 15명, 청라에 12명, 남포에 6명, 웅천에

4명이 분포되어 종사 인원이 40~50명쯤으로 공장 형태의 업체에 일부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자가생산으로 운영되었다. 80년대 중반들어 벼루 제작업은 최성기를 이루는데 타 석공예업과 마찬가지로 제작 공정이 하나둘씩 기계화 과정으로 발전하였다. 원석을 자르는 데도 대형, 중형, 소형의 절단기로 용도에 맞게 자르고, 조각을 하는 데도 기계를 이용하여 세공할 정도가 되어 대량 생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공장 형태의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 수요의 감소에다 저가의 중국산 벼루가 홍수처럼 들어 오면서 보령지역의 벼루산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벼루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게 되고 벼루 제작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타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오늘날 벼루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장인(匠人)의 손에 의하여 혼을 불어넣는 공예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보령지역의 전통적인 벼루의 맥을 잇고자 장인들은 ‘남포연(藍浦硯)보존회’(회장 원창재)를 만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벼루제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벼루제작에 종사하고 있는 김진한(청라면 의평리 한진공예 대표 - 무형 문화재 제6호 남포벼루 제작기능 보유자) 씨는 지난 2005년 10여 년간 운영하던 벼루원석 채취장(웅천읍 평리)을 폐쇄했다. 따라서 현재 보령에는 벼루원석 채취장이 하나도 없다. 한진공예에서는 1년에 1,000여 개의 조각 벼루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의가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원석은 그동안 채취하여 비축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보령지역의 벼루장인(匠人)들 거의가 비축 원석을 이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4) 보령 벼루의 종류

보령지방에서 생산되는 벼루를 분류하면 아무 문양(紋樣)도 없고 조각도 되어 있지 않은 민벼루, 원석이 나타내는 문양에 따라 화석연(化石硯), 금사문연(金絲紋硯), 은사문연(銀絲紋硯), 석란연(石卵硯), 화초연(花草硯), 백운상석연(白雲上石硯), 조각한 문양에 따라 용연(龍硯), 매화연(梅花硯), 송학연(松鶴硯) 등이 있다.

벼루제작업체(자) 현황

2008년 현재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년간생산량(개)	생산형태	
	성명	주소			공장	자가
대승공예	원창재	웅천읍 대천리 145	1	140	○	
	김종열	웅천읍 대창리 679				○
웅천벼루	고성호	웅천읍 대천리 160-16				○

경남버루	신웅호	웅천읍 대창리 683-20				○
오석공방	김일환	웅천읍 두룡리산 45-2				○
한진공예	김진한	청라면 의평리 549	3	1,000	○	
	장현순	청라면 의평리 560				○
	송경숙(보)	청라면 의평리 557-1				○
	권태만	청라면 의평리 774-4				○
	이영식	청라면 의평리 469				○
	노재경	청라면 의평리 708-2				○
	진종완	청라면 의평리 437				○
	민흥기	청라면 의평리 584				○
남포버루	채중석	남포면 창동리 641-7			○	
지석연구원	김유제	미산면 봉성리 319				○
영광버루	김정덕	미산면 도화담리 309-4				○
	임익순	미산면 도화담리 산2-10				○
	이용국	보령시 죽정동 181				○

3. 공업단지

1) 공업화 정책

(1)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역 균형개발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자립과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목표로 공업화 정책이 시작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충남지역에서 거론된 곳이 서천군 비인과 보령의 고정리인데, 결국 두 곳 모두가 화력 발전 단지로 개발되었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에서도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게 되어 지방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속속 개발되어 기업유치에 나서게 되었다.

(2) 보령지역의 산업단지

고정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전력에서 1978년 전원(電源)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하게 되었으며, 80년대 들어와서는 농촌의 공업화 정책으로 당시 대천시에서는 요암 농공단지, 보령군에서는 주포 관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1991년말 준공하여 기업체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2년 관창공업단지 조성은 (주)대우에서 그룹차원의 개발로 착수하여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다. 그때 웅천과 주산면의 해안지역에

대단위 응주공단 조성계획도 입안되었으나 지반이 부적합하여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 산업단지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되어 응천농공단지가 92년 말, 주산농공단지가 95년 말, 응천석재전문화단지가 98년에 각각 준공되어 중소기업들이 입주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는 우리 지역의 공업화 시책에도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는데, 특히 대우그룹의 해체로 관창공단에 입주 예정이었던 대우 계열사들의 입주가 좌절되고 단지 조성에도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이 공단은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08년에야 충남도와 보령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기업 입주가 마무리되었다.

보령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2008년 현재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m ²)	입주업체수	종업원
합계	7개소	7	8,950,532	90개소	3,398명
국가산단	보령화력	주교면고정,송학,오천면오포	5,895,495	1	865
지방산단	관창산단	주교면관창,주포면관산,봉당	2,442,000	12	1,140
산업단지	소계	5	613,037	77	1,393
	응천	응천읍 구룡리 2-8	171,306	24	375
	응천석재	응천읍 대창리 959-2	108,638	25	111
	주포	주포면 관산리 320-14	128,566	15	376
	주산	주산면 야룡리산 244-1	117,842	1	210
	대천	요암동 74	86,685	12	321

2) 국가산업단지 보령화력

(1) 단지 규모

2008년 현재 보령화력 발전단지의 총 면적은 5,895,495m²(1,783,400평)으로 국가 산업단지 구역이 4,612,064m²(약1,395,100평), 전원 개발사업구역이 1,283,431m²(약388,200평)로 구분 되어 있으며, 산업 단지는 다시 공장용지 1,322,100m², 지원시설용지(북부, 남부 회처리장) 2,503,753m², 공공용지 86,211m², 해면 700,000m²로 이루어졌고 전원개발 사업 구역은 고정화력 자재 야적장 및 저탄장(81.8.8시설) 297,522m², 고정화력 회처리장 일부 축조사업(83.6.4일) 101,001m², 보령화력 3,4호기 건설사업(88.4.6일) 366,533m², 남부 회처리장 건설사업(96.1.19일) 1,283,431m²로 이루어졌다.

(2) 연혁

1978년 한국전력이 고정화력 1·2호기 건설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국내 최대 발전 단지인 보령화력의 역사는 시작된다. 1979년 12월 당시 보령군 오천면 오포리 산 212번지에 발전소 건설을 착공하여 1984년 9월에 500MW 용량의 기력1·2호기를 준공하고 전기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후 1993년 6월에 500MW 용량의 기력 3·4호기 준공, 94년 4월에 500MW 용량의 기력 5·6호기를 준공해 가동해 왔는데 이때까지 투입된 건설비만 2조 685억 원이었다.

1996년에는 총사업비 9,150억 원을 투입하여 같은 단지내인 주교면 고정리에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으로 가동되는 복합화력을 건설, 2002년 8월에 준공하였다. 또 2005년 3월에는 총 사업비 1조 1,130억 원을 투입하여 500MW 용량의 기력7·8호기를 착공하여 7호기는 2008년 6월에, 8호기는 2008년 12월에 각각 준공하였다.

(3) 발전시설

보령화력은 2008년 말 현재 화력발전 시설용량 50만kw 8기(1~8호기)에서 400만kw, 복합화력 시설용량 30만kw 6기(가스터빈 4기 120만kw, 증기터빈 2기 60만kw)에서 180만kw로 총 시설용량이 580만kw이며, 이는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7.5%에 달하는 전국 최대의 발전 단지이다. 1~6호기까지의 발전시설은 석탄과 중유를 겸하여 연료로 쓰고 있으며, 복합화력은 LNG가 주 연료이나 비상시에는 경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7·8호기는 석탄만 사용한다.

연료로 인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정발전을 모토로 석탄의 하역, 야적,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탄 방지를 위해 전과정을 밀폐형으로 시공하였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고효율 전기 집진기, 탈황·탈진설비 등 첨단 제어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7·8호기의 경우 굴뚝을 한 개로 일원화 하는 첨단 공법을 도입하였다.

또 순환수 여수력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 시설로 1~6호기 방류구역에 1,250KW 4기, 7~8호기 방류구역에 2기 등 총 6기의 소수력에서 7,5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발전 설비 운용에 부가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4) 매출규모

2007년도 기준 보령화력의 매출규모는 2조5천85억9백사십오만9천(2,508,509, 459,000) 원이다.

연도별 전력 생산량

단위:MW,MWh,kW

연도별,발전소별	발전설비(MW)	발전량(MWh)	평균전력(kW)	최대전력(kW)
2000	4,200	23,742,507	2,702	4,185
2001	4,200	22,985,589	2,623	4,233
2002	4,800	27,164,957	3,101	5,128
2003	4,800	27,846,936	3,178	4,834
2004	4,800	31,799,212	3,620	5,062
2005	4,800	31,671,826	3,616	5,071
2006	4,800	30,620,859	3,495,532	5,103,000
보령화력#1-6	3,000	23,399,116	2,671,132	3,111,000
보령복합화력	1,800	7,221,743	824,400	1,992,000

(5) 지역 협력사업

보령화력은 2006년 말 기준 보령시 지방세 세수의 11%에 달하는 38억 원을 납부했으며, 지역협력 사업으로 주민 소득 증대사업, 공공 시설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에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약 973억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 지역협력 사업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년도	합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973	11	10	14	11	16	11	26	26	38	145	42	44	44	40	26	27	207	111	124
보령시	818	10	8	12	9	13	8	22	20	29	139	34	36	38	34	19	19	189	80	99
화력본	155	1	2	2	2	3	3	4	6	9	6	8	8	6	6	7	8	18	31	25

3) 관창 지방산업단지

(1) 단지규모 및 연혁

관창 지방 산업단지는 지난 80년대 말 대우그룹에서 계열사 중공업 및 자동차관련 업체의 전용 공단으로 개발을 입안, 관창지구 1,664천㎡(503,400평), 주포 봉당 관산지구 지원단지 778천㎡(235,300평) 등 총 2,442천㎡(738,700평) 규모로 조성중인데, 공사는 대우건설이 시행업체로 1992년에 착공하여 2004년 관창지구만 부분 준공되어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지원단지는 당초 목적기능이 저하되어 2008년 현재 관창산단 협력업체 입주를 위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우 그룹에서는 공단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1991년 10월 주포면 관산리에 대학 설립허가를 받고 1994년 11월 대천전문대학 인가, 1995년 3월에 1회 신입생 400명을 뽑아 인재 양성을 하는 등 정성을 들여왔다.

그러나 그룹 해체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었지만 2004년 9월 1일 아주자동차 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어 자동차 산업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입주(예정) 업체

(2008년 8월 현재)

업 체 명	대표자 (명)	면적 (㎡)	종업원 (명)	생 산 품	가동 여부	비 고
합 계	12	1,272,813.7	5,972			
GM대우오토테크놀로지(주)	마이클에이 그로피	205,140.0	472	자동차부품 ATM(자동변속기)	가동중	
S & T대우(주)	김택권	9,100.1	20	자동차부품(너클)	"	
SEP & C(주)	김태진	58,844.0	70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상수도용도복장강관	"	
S&S아이앤씨(주)	양주현	27,471.3	50	자동차부품(단조품)	"	
코리아 휠(주)	김상도	134,758.4	500	자동차부품(휠)	공사중	
한국후꼬꾸(주)	권순목	75,389.4	120	자동차부품(댐퍼폴리)	설계중	
삼목강업(주)	송종섭	80,736.4	200	자동차부품(스프링)	"	
두원전선(주)	김상복	154,196.4	200	절연전선,산업로보트	"	
타가즈코리아(주)	이승철	387,772.2	4,100	자동차부품(CKD,SKD)	"	
(주)에스디스틸콘	손배일	65,052.2	60	철강재,알루미늄합금	"	
(주)이건	문건수	35,929.2	80	자동차부품(오일팬등)	"	
(주)일조	김일수	38,424.1	100	육계가공업 및 도축업	A사외매각협의중	

(3) GM대우 오토엔테크놀로지(주)

관창 산업단지에 제일 먼저 입주하여 자동차 자동 변속기를 생산하는 GM대우 오토엔테크놀로지(주)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괄목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관창리 1227-1번지에 소재한 이업체는 205,140㎡(약62,000평)의 부지 위에 건물 67,735㎡(약20,500평)의

공장에서 472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연간 전자제어 변속기 25만 대와 6단 자동변속기 30만 대 등 총 55만 대의 변속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1996년 7월 대우 그룹에서 공단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구역을 준공, 대우정밀공업 보령공장을 완공하고 다음해 7월부터 자동변속기 4HP14(유압 제어식)의 양산을 개시한 이후 1999년부터는 자동변속기 4HP16(전자 제어식)을 양산하여 QS9000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대우통신으로 합병되었다가, 2002년 대우통신에서 분리하여 대우파워트레인이라는 신설법인으로 출범, ISO14001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 2004년 지엠대우 오토엔 테크놀로지(주)로 합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영보 일반지방산업단지

(1) 단지규모 및 추진계획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대에 들어설 영보 일반 지방산업단지는 실수요자(GS칼텍스(주)) 직접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에 걸쳐 건설할 계획이다, 총 부지면적은 1,066,908㎡(322,700평)로 전기, 가스 및 증기 업종을 유지할 예정인데 총사업비 2조원이 투입되는 본 단지에는 LNG저장탱크 16만kl 2기를 시설하고, 연차적으로 6기를 추가 시설하며, 해안에 7,500DW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1선좌의 항만시설을 건설한 다음 1선좌를 추가 시설할 계획이다.

(2) 2008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06년 GS칼텍스(주)에서 단지 조성계획을 입안 2007년 9월 21일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2008년 4월 실시계획 승인신청, 2008년 6월 보상물건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 협의 및 토지매입에 들어갔으며 2009년 6월부터 부지조성공사, 2010년10월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5) 웅천 산업단지

웅천 산업단지는 웅천읍 구룡리 2-8번지 일대에 228,946㎡(69,255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992년 12월 28일 준공되어 2008년 현재까지 169,654.2㎡(51,320평/24블럭)가 분양, 24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웅천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2008년 8월 현재)

업 체 명	대표자	면적(m ²)	종업원	생 산 품	가동여부
합 계	24	169,654.2	375		가동23, 휴업1
동방에스앤씨	김희태	9,959.9	9	콘크리트블럭	가동
(주)에이비텍	박은우	9,923.7	10	항공기 탑승교	"
한국후지공업주(1공장)	김총원	7,829.9	30	육절기	"
한국후지공업주(2공장)	김총원	8,315.3	30	저온냉장고, 쇼케이스	"
(주)보령지관	김경환	9,558.6	17	지관	"
(주)한국포조텍	권승안	10,174.4	4	시멘트혼화제	"
보령유리공업(주)	김희숙	9,937.0	8	각종유리병	"
보령축협	임동철	11,690.1	23	사료	"
천성테크	최정근	8,689.8	10	산업용기계	"
동방침구제작소	김근식	4,561.5	35	1회용호침	"
동방침구제작소	김근식	1,653.0	-	1회용호침	"
동서철강(주)	우장환	4,981.0	17	철선조립	"
(주)엠브로상사	송해봉	4,295.9	35	폴리에스테르연사	"
삼락열처리	신울상	4,993.2	5	열처리	"
(주)나노텍	이종만	6,377.2	11	화장품 원료	"
(주)해돌박이	김병수	7,251.2	6	액젓, 김	"
웅화알파에너지	김재철	6,612.0	7	화장품	"
보령팩	김갑기	3,212.0	5	재생플라스틱원료	"
(주)케이에이치에스	임한성	4,138.8	7	버섯액기스	"
(주)엠브로상사	송해봉	5,464.4	50	폴리에스테르연사	휴업
(주)에이스패널	안언모	8,524.7	20	콘크리트벽판	"
청명씨이에스	김상곤	6,370.5	11	스팀오븐기	"
(주)칠성산업	조창희	7833.6	8	도자기기기	"
캠프리텍(주)	황명숙	7,309.5	17	컨테이너박스 바닥재	"

6) 웅천 석재전문화 산업단지

웅천 석재전문화 산업단지는 웅천읍 대창리 959-2번지 일대에 148,357m²(44,878평) 규모로 1998년 6월 27일 준공되었는데 그중에 108,637.6m²(32,682평/25블럭)가 분양되어 2008년 현재 2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웅천석재전문화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2008.08월현재)

업 체 명	대표자	면 적	종업원	생 산 품	가 동 여 부
합계	25	108,637.6	111	석제품17,기타8	가동16재분양8,휴업1
중량석재	김길환	1,764.7	2	석제품	가동
안흥석재	김을선	4,219.6	2	석제품	"
태옥석재	김옥선	1,659.9	1	석제품	"
한일석재기계	한광택	3,179.4	5	석제품	"
문영석재	임문영	2,852.8	1	비석, 상석	
거문조경	구재현	2,839.1	5	건축자재	"
대림석재	임대빈	3,555.3	3	묘비석, 건축자재	"
보령석재	이상운	4,668.8	3	석제품	"
문화가공	김순옥	4,219.7	8	각재, 파레트	"
동양건설	이익희	3,126.0	2	석재건축자재	"
대성석재	최귀종	2,611.8	6	석제품	"
영 광	윤성호	25,638.3	17	섬유원사제조	"
유성하이테크(주)	최재춘	2,857.5	6	환풍기	"
한국재생유	김강일	12,570.8	15	재생유	"
동 광	강윤구	4,769.0	7	석제품	"
(주)폴리텍	이기준	5,537.5	12	PE관	"
황금석재	이덕수	3,062.1	2	비석, 상석	재분양
서해장모사업회	이 길	3,047.7	0	석제품	"
예성석재	김주원	3,089.9	4	묘테석, 화강상석	"
빛나리에술원	김영대	1,681.4	1	석제품	"
미래석조산업	황 현	2,503.4	5	석제품	"
덕수건재	이덕수	2,450.6	2	벽돌, 블럭	"
가남산업	노병진	3,226.5	0	프라스틱선	"
세아석재	최준식	1,263.8	2	석제품	"
(주)유하에너지	구자남	2,242.0	0	재생유	휴업

7) 주포 산업단지

주포 산업단지는 주포면 관산리 320-14번지 일대에 171,571㎡(51,900평) 규모로 1991년 11월 16일 준공하여 128,566㎡(38,891평/15블럭)가 분양되었으며 2008년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주포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2008년 8월 현재)

업 체 명	대표자	면적(m ²)	종업원	생 산 품	가동 여부
합 계	15	128,566.0	466		가동15
(주) 송 학 장 갑	최현규	5,249.0	117	면장갑	가동
(주) 송 학 장 갑	최현규	6,483.0	73	"	"
대 신 장 갑 (주)	최현규	6,483.0	62	코팅장갑, 고무장갑	"
(주)세광섬유1공장	윤 찬	10,483.0	60	연사, 화섬사	"
(주)세광섬유2공장	윤 찬	10,564.0	15	연사, 카바링사	"
(주) 광 암 섬 유	윤 찬	5,289.0	15	연사, 화섬사	"
덕흥제선(주)1공장	김도선	10,804.0	51	스텐레스철선	"
덕흥제선(주)2공장	손인국	10,437.0		스텐레스철선	"
게 란 티 제 약 (주)	손창욱	16,236.0	7	항암제 약품	"
에 프 원 테 크 (주)	노광석	8,269.0	9	석탄재가공	"
보 령 머 드	신준희	7,636.0	15	화장품	"
스 타 킹 월 드	장소자	6,926.0	19	스타킹	"
(주) 화 경 엔 탑	박기성	9,718.0	12	건축자재(방음벽)	"
동 호 실 업	한범수	3,721.0	5	창호, 샷시	"
(주) 야 일 금 속	장일기	10,268.0	6	가위	"

8) 주산 산업단지

주산 산업단지는 주산면 야룡리 산244-1번지 일대에 154,188m²(46,641평) 규모로 1995년 11월 30일 준공하여 117,842m²(35,647평)가 분양, 준공과 동시에 강산건설(주) 보령철구사업소(대표 박재운)가 단독으로 입주하여 2008년 현재 가동 중으로 210명의 근로자들이 교량, 플랜트, 철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다.

9) 대천 산업단지

(1) 단지규모 및 입주업체

대천 산업단지는 보령시 요암동59-1번지 일대에 102,359m²(30,963평)규모로 1991년 12월 28일 준공하여 86,685.5m²(26,222평/12블럭)가 분양되었으며 2008년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대전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2008년 8월 현재)

업체명	대표자	면적(㎡)	종업원	생산품	가동여부
합계	12	86,685.5	321		가동12
다화상사	백응권	6,763.2	6	조화	가동
연합산업건설	신상진	6,171.4	22	알루미늄 샷시	"
보령산업사	조동환	3,093.3	5	뱅어포	"
(주)대전식품	최민순	12,088.0	30	맛김	"
(주)아진정공	조남달	13,661.5	91	정밀 모형기관차	"
서원영어조합법인	유계성	6,612.4	6	냉동	"
화성칼라텍	정의환	6,612.8	11	칼라박스	"
(주)에스에프씨	박원기	8,435.9	80	실사	"
우성정밀(주)	문한광	6,368.6	34	자동차부품	"
"	"	8,304.9	15	"	"
"	"	6,590.5	15	"	"
청해영어조합법인	손승식	1,983.0	6	맛김	"

(2) 주식회사 에스에프씨

1988년 삼우 라미네스로 출발하여 읍셋용 필름 개발을 시작으로 각종 특수 필름의 개발 생산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에스에프씨(대표 박원기)는 제도 복사용 필름 개발, 광 확산 필름 개발, 칼라 잉크젯 필름 개발, 칼라 잉크젯 페이퍼 개발, Hologram Laminating Film 개발, Bio Laminating Film 개발, Solvent용 Inkjet Media 개발, 태양광 모듈용 Back Sheet 개발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세계 무대로 진출, 1996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8년 후인 2004년에는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여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보령본사 제1공장(대지 8,500㎡, 건평 6,500㎡) 외에도 청양 비봉에 제2공장(대지 8,435.9㎡, 건평 4,634.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제3공장(대지 5,500㎡, 건평 2,500㎡)을 운영하여 연간 태양광 모듈용 Back sheet 300MW, 콜드 라미네이팅 필름 300톤, 실사소재&특수필름 2,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4. 기타 제조업

1) 농산물 가공

(1) 도정(搗精)공장(방앗간)

근대화와 함께 농산물 가공에도 기계화의 전기를 맞게 된다. 초기의 도정공장은 원동기(原動機-발동기)의 동력을 피대(벨트)로 정미기(精米機)에 연결하여 돌려서 왕겨를 벗겨내고 현미가 쌀이 되도록 반복하여 연마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당시에는 기계를 지게나 우마차로 이동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도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근대적 방앗간의 시작이었다. 점차 원동기의 규모가 커지고 정미소도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 한 정미소에서 벼, 보리, 밀 등을 모두 가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정미소에서는 벼, 보리, 밀을 가공하는 과정들이 별도로 시설되었다.

정미분야는 벼껍질(왕겨)을 벗기는 매와 현미를 7~10분도까지 연마하는 정미기를 3~5단으로 설치하였고, 보리를 깎는 매, 밀을 뿔아 가루를 내는 제분기가 설치 되었으며 승강기를 시설하여 알곡을 자동으로 퍼 올리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원동기 도입초기에는 한 마을에서 경쟁적으로 두세 개의 방앗간이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식량 자급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식량증산을 장려하면서 미곡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방앗간도 대형화되면서 마을 단위 또는 2~3개 마을 단위의 방앗간이 운영되었다.

70년대 말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미소의 동력원도 원동기에서 전기모터로 바뀌었다. 도정료(방아삯)는 모두 현물(쌀, 보리, 밀)로 받았기 때문에 방앗간은 쌀이 떨어질 날이 없는 부잣집으로 통했다. 도정료는 미곡의 경우 처음에는 2%(쌀 한가마당 2되)정도 받았으나 벼를 실어다가 찢어주는 등 서비스가 향상되고 부대 비용이 추가되면서 4~5%까지 오르고 최근에는 7%까지 받는 데도 있다고 한다. 보리나 밀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보통 10%의 도정료를 알곡으로 공제 후 정맥, 제분 작업을 하였다.

이처럼 도정업이 현대화·대형화되면서 과거 각 마을마다 있던 정미소가 이제는 몇 개 마을에 하나씩으로 대폭 줄어들고 시설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양질의 쌀을 도정하기 위한 경쟁체제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부가 농협을 통하여 RPC(미곡 종합 처리장) 사업을 추진하자 민간에서도 시설을 확충하여 미곡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천2동의 대천 미곡 처리장(대표 권구남)과 주교면 창미 미곡 종합 처리장(대표 한상열), 남포면 월전 미곡처리장(대표 이영우)이 대표적이다.

도정공장 분포현황

(2008년)

읍면동	계	웅천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주산	미산	대천1	대천2	대천4
개소	51	4	4	6	1	5	6	10	6	5	1	1	1	1

(2) 미곡 종합 처리장(RPC, DSC)

주곡의 자급화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쌀 시장 개방에 대처하여 정책적으로 미곡 종합 처리 시설(RPC)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미곡 종합 처리 시설은 수확된 벼를 산물 상태로 반입하여 선별, 계량, 품질검사, 건조, 저장, 도정, 제품출하, 부산물처리 등 과정을 일관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1년부터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자금력과 조직력이 풍부한 농협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했는데 보령지역의 미곡 종합 처리장(RPC-Rice Processing and Milling Complex)은 남포농협을 시작으로 대천농협(당시 주포농협)과 주산농협에서 차례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곡 건조 저장시설(DSC-Dryness Store Complex)은 웅천농협, 천북농협, 청소농협, 청라농협에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협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곡 종합 처리장은 농가의 영농 편의 증진과 수확물 손실의 감소, 노동력과 비용의 절감, 양질미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양곡 유통의 개선 등 앞으로 쌀 산업의 일대 도약을 선도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미곡 종합처리 시설 현황(RPC 및 DSC)

□ 저장능력

2008년 현재

업체명	구분	주소	저장시설능력			총저장 (톤)	저온,냉각,단열시설능력		
			빈 (톤/기수)	사일로 (톤/기수)	평창고 (톤/동수)		저온 톤/동수	냉각 톤/기수	단열 톤/기수
대천농협	FFC	주교은포335	600/10	3,700/10	400/1	4,700		3,000/6	700/4
남포농협	FFC	옥서2-10	600/12	2,600/6	600/1	3,800		2,000/4	600/2
주산농협	FFC	야룡661-25		2,500/7	920/3	3,420			1,900/5
웅천농협	DSC	죽청594-2		3,900/9	800/2	4,700			3,900/9
천북농협	DSC	하만리		1,800/4	868/2	2,668			1,800/4
청소농협	DSC	진죽528-1		1,500/3	1,000/1	2,500			1,500/3
청라농협	DSC	황룡832-8		1,000/2	1,000/1	2,000			1,000/2

□ 건조 가공능력

2008년 현재

업체명	구분	건조시설능력				총건조 능력 (톤)	총가공 능력 (톤)	매입장비			
		순환식 톤/기수	연속식 톤/기수	빈 (톤/기수)	사일로 (톤/기수)			호퍼 스케일 (대)	제현물 추정기 (대)	동력 제현기 (대)	원료 투입구 (개)
대천농협	FPC	4,675/7	8,000/2	600/10	3,600/9	16,875	12,000	3	1		3
남포농협	FPC	3,081/10		600/12	2,600/6	6,281	14,400	2	1		2
주산농협	FPC	3,315/6			2,500/7	5,815	7,200	2			2
웅천농협	DSC	1,870/5			3,900/9	5,770		3		1	3
천북농협	DSC	850/2			1,800/4	2,650		1		1	1
청소농협	DSC	850/2			1,500/3	2,350					
청라농협	DSC	40/2			1,000/2	1,040					

2) 식품 제조업

(1) 식품 제조업의 변천과정

우리의 먹을거리는 거의가 자급자족 형태로 대를 이어 오다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구조가 급속히 다변화 복잡화 되면서 집단 급식소의 출현과 일반 가정에서의 시간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먹을거리 구매의 편리성 때문에 식품제조업이 급속히 발전해 왔는데 공장형태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떡 방앗간과 두부 제조업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가정에서 전통 방식에 의하여 제조하여 소규모로 판매되던 두부는 1976년 김영수(金永洙-1987년 他界)씨가 대천동163-1(보령경찰서 뒤편)에서 공장을 차리고 두부를 만들기 시작한 영복식품(두부, 대표 김용환)이 시초이다. 영복식품은 2대에 걸쳐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양곡의 유통과 소비를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하면서 혼식, 분식을 장려하던 때라 명절이나 잔치 때가 아니면 떡을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설 명절 때에는 벼를 도정하던 방앗간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정미기를 이용하여 흰떡(가래떡)을 만들어 주던 때도 있었는데, 흰떡은 대나무 구멍을 이용하여 틀을 만들어 정미기에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 시루에 떡밥(고두밥)을 해 오면 정미기에 넣고 우겨넣어 떡 가래를 빼는 것으로 오늘날 떡 방앗간의 효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보령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목록에 따르면 최초로 신고된 떡집은 주포떡집(대표 이종태, 1976.03.05일 신고)이며 인구 밀집 지역인 대천을 중심으로 변두리 지역이었던 쇧개 마을에서 몇 가구가 집에서 인절미 등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 시장 떡전이 형성되다가 1980년대 들어와 지금의 광명당 부근에서 영복떡집, 고려당

떡집이 문을 열고 전문화된 떡 방앗간도 문을 열면서 우후죽순처럼 여러 분야의 식품 제조업들이 성행하였고 일부 공장형태로 규모화하여 발전하였다.

또 보령 지역은 조미김과 젓갈 종류 등 수산물 가공 분야의 식품제조업이 발달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약재를 가미한 각종 재료를 섞어 증탕으로 즙을 내는 건강원 등 건강식품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제과 제빵 분야는 대기업의 대리점 또는 체인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대형 마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제조업은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하여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소득사업으로 보급한, 청라면 내현리 ‘은행한과’와 주포면 ‘고내미 전통장류’ 생산은 우리의 전통식품을 상품화한 것으로 날로 매출이 늘고 있으며, 조미김이나 젓갈류 가공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형도 있다.

식품제조업체 현황

(2008년 현재)

업종별	계	떡방앗간	건강원	조미김	젓갈류	두부	도시락	음료	김치
업체수	274	82	65	63	30	4	2	5	3
업종별	건포	식육	과자	조미식품	한과	홍삼	얼음	면류	기타
업체수	3	2	2	2	2	1	1	1	6

(3) 조미김 가공

김은 본시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생산되는 전통 먹을거리로 계절 식품이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 식탁에 오르던 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 굵은 소금을 뺏아서 간을 하여 잠시 채워 두었다가 찌리로 불을 때어 밥을 짓고 그 찌리 숯불에 구워 밥상에 올린 것이었다. 그런데 김 양식 기술이 보급 발달되면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고 건조 저장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연중 식탁에 오르는 사철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령지방은 1970년대에 김 양식이 크게 번성하여 맛좋은 ‘보령김’의 유명세를 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조미김 가공 기술의 도입으로 보령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완전 식품으로서의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소규모로 김을 구워 팔던 것이

1984년 당시 수산업 협동조합장을 지내던 최종찬(보령시 대천동 439-12 대천맛김)씨가 대천동 410-4번지에 ‘보령맛김’ 가공 공장을 짓고 구운김을 생산한 것이 공장형태 조미김 생산의 시작으로 이후 김 가공 산업이 확산되어 2008년 현재 60여 업체가 성업 중이며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의 진출과 우체국 택배, 인터넷 판매 등으로 전국 소비는 물론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에 상당량을 수출하여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다.

(4) 발효식품(젓갈류)가공

젓갈은 우리 전통의 발효 식품이다. 젓갈류 가공은 오래전부터 해안선을 따라 어업 현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보령 지역은 청소면 죽림리 의식(웃배미)마을에 일제시대에 굴착한 토굴에서 젓갈을 숙성하기 시작한 것이 다량의 젓갈 제조의 시작이며, 현재도 총 8개의 토굴에서 대표적 젓갈인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류를 숙성 생산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와 액젓의 수요가 늘면서 젓갈 제조도 대형 공장 체제로 발전하면서 생산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다. 판매방법도 액젓 원액을 유명 업체에 납품하는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포장하여 백화점 등 대형 유명 매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인터넷 판매도 하는 등 30여 업체가 성업 중이다.

(5) 건멸치 제조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 멸치를 잡으면 많은 양이 건멸치로 제조된다. 2000년대 들어서 어선의 대형화 현대화에 따라 어선에 멸치 삶는 시설을 하여 그물을 올리는 즉시 삶아 내어 선도를 유지하여 건조장으로 보내지고 건조를 끝낸 멸치는 선별작업을 거쳐 포장하여 냉장보관하였다가 출하한다. 보령시 관내에는 멸치 그물 어선인 근해 안강망 어선이 65척, 구획어업(주목·낭장망)이 195척 등 260여 척이 멸치를 잡아 2007년도에 건멸치 944톤을 생산했다.

(6) 주류 제조업

정부수립 이후 주류가 산업화 되자 국가에서 주세 수입을 위해 자가 생산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양조장을 육성하였는데 이것이 주류 제조업이었다. 막걸리와 약주를 생산하던 양조장은 유통기간을 감안하여 읍면별 도서별로 배치하여 1970년대엔 대천읍에 3개소, 웅천면에 2개소, 나머지 8개면에 각 1개소, 원산도, 삼시도, 외연도에 각 1개소 씩 모두 16개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화학주인 소주와 맥주에 밀려 시장을 내주면서 양조장은 이제 몇 개 업체 안 남았다. 한때 웅천읍 두룡리 소재 수석농산에서 대규모 포도단지를

조성하고 ‘위하어’라는 브랜드로 와인을 비롯한 과일주를 생산해 온 바 있으며, 2001년부터는 남포 사현포도 영농조합 법인에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

주류 제조업체 현황

(2008년 현재)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생 산 량(년간kl)			종사 원수	설립 연도	비고
			탁주	와인	동충하초술			
대 천 합 동 주 조 장	이봉우	보령시 내항동 428	20.0			2	1948	
천 북 양 조 장	홍봉안	천북면 하만리291-1	20.0			3	1998	
미 산 양 조 장	윤이섭	미산면 도화담리195-16	54.0			3	1963	
동이농산영농조합법인	백이호	남포면 소송리402-4			1.0	2	2004	
사현포도영농조합법인	김원영	남포면 옥서리 449		40.0		10	2001	

3) 소금 제조업

소금은 우리가 쓰는 자원 가운데 용도가 제일 많은 자원이다. 단순히 식품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화학공업의 원료로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소금층을 굴착하여 채취한 바위 소금과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결정체를 만드는 천일염을 사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염 관리법에 의하여 천일염을 광물로 분류하여 식품 제조에서는 사용을 금했는데 2007년 12월 염관리법을 개정하고 2008년 3월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이 되었다.

바다 갯벌을 막아 바닷물을 끌어들여 햇볕으로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천일염이라 하는데 보령지역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연안 간척지와 섬 지역에 10개소(67.8헥타)의 염전에서 연간 3,000여 톤의 소금을 생산해 왔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고 타 개발 사업으로 염전이 이용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하나둘씩 소금생산을 중지하고 양식장, 논, 대지, 발전소 부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남아있는 염전들도 타용도로 쓰거나 폐허가 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서해안 지역 천일염의 진가가 재조명되면서 명품화 바람이 불고 있다.

등록된 염전 현황

(2008년 현재)

염 전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적(m ²)	운영 여부	비
학 성 염 전	전병남	천북면 학성리673외1필	28,731	×	양식장
원 산 도 염 전	장의분	오천면 원산도리184-558	60,740	×	
장 고 도 염 전	성원모	오천면 삼시도리832외8필	46,772	×	

4) 임산물 가공

(1) 제재업

각재와 판재를 생산하던 제재업은 광산이 번성하던 70~80년대까지 번성하다가 대기업에서 완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수입품까지 들어와 시장을 잠식하면서 경쟁력에서 밀려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재소 현황

(2008년 현재)

업 체 명	대표자	위 치	생 산 품	종사원	설립년도	비 고
웅천제재소	임태빈	웅천대창679	각재, 판재, 특수목재	1	1975	
대 흥 우 드	이치선	청소진죽509-5	목제품, 목조주택, 목조조경 등	9	1978	
진원제재소	정명자	명천동581-9	각재, 판재, 특수목재	1	1998	

(2) 목공예품 생산

나무를 소재로 주요 생활용품을 만들던 목공장(木工匠)들도 이제는 산업화로 대형 공장에서 나오는 완제품들에 밀려서 일감을 잃고 많은 업소가 휴·폐업하고 전업하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혼수품으로 만들던 장롱이나 학생들의 책상과 걸상, 부엌 찬장, 밥상, 한옥과 양옥의 문짝 등을 만들던 동네 목공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2008년 현재 웅천읍과 보령 시내 지역에 5개소의 목공소가 운영 중이고 씽크대 등 부엌 가구와 불박이장, 수납장, 신발장, 책장 등 맞춤형 가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가동 중이다.

목공소 현황

(2008년 현재)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생 산 품	종사원수	창업년도	비 고
대 동 목 공 소	권동수	웅천읍 대창리462-5	창호, 문틀	1	1982	
광 일 목 공 소	최영철	보령시 대천동378-16	"	1	1974	
충 남 목 공 소	이경석	" 동대동1372	"	1	1979	
한 내 목 공 소	이훈구	" 대천동408-6	"	1	1973	
형제문제작공사	이건우	" 화산동601-1	"	1	1996	

씽크대 공장 현황

(2008년 현재)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생 산 품	종사원수	창업년도	비 고
대 명 씽 크	이성복	남포면 봉덕리43-2	씽크대, 불박이장	2	1998	
대 한 씽 크 대	이문복	보령시 대천동378-26	"	2	1998	
서 울 씽 크 대	양희배	" " 159-4	"	2	1993	
청 술 씽 크 대	이강우	" 요암동363-8	"	2	1997	
태 경 씽 크 대	유영구	" 대천동318-49	"	3	1982	

5) 요업(窯業)

(1) 요업의 개념

흙을 구워서 도자기, 벽돌, 기와 따위를 만드는 공업으로 넓게는 유리, 시멘트, 단열재 등의 제조업까지 포함한다. 요업의 원료는 원래 특정 퇴적물에서 얻었으나 과학의 발달로 이들 원료를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많은 요업 제품들은 천연 원료를 쓰지 않고 500여 개 이상의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

요즈음은 원료를 화학 반응에 의하여 합성하기 때문에 원하는 특성과 성질을 가진 제품을 얻기 위해서 그에 맞는 원료를 선정하고 그 원료를 정련하여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서 잘 혼합한 다음 물 같은 액체를 가하는 공정을 거쳐 성형을 하는데, 주요 성형 공정으로는 물레를 돌리는 가소성형(可塑成形), 주형에 유체물질을 부어서 외층을 만드는 슬립주조(slip casting), 혼합물을 형틀(die) 안에 조밀하게 채워서 다음 공정에서 다루기 쉽도록 하는 압착(pressing), 한 배치(batch)를 녹는점까지 가열한 후에 주형에 붓는 용융주조(鎔融鑄造) 등 4가지의 공정이 있으며 성형된 제품은 열 처리를 해 수분을 제거한 후 가마에서 굽는다. 다 구운 후에는 매끄러움과 세척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약 또는 범랑(瑔瑯)을 칠하며, 마지막으로 굽기 전에 유약을 다시 칠하여 구워내면 제품이 완성 된다. 대중적 생활 용품으로 도자기(陶磁器)와 옹기(甕器)가 있다.

(2) 보령지역 요업의 발달과정

보령지역은 천북면 사호리의 사기점골, 장은리의 동이점·점말, 주교면 신대리의 점촌, 화산동의 점촌, 미산면 도흥리의 백토산 등 요업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청소면 진죽리 대숲말의 도요지(陶窯址)를 비롯하여 성연리의 와요지(瓦窯址), 미산면 평라리의 도요지, 웅천읍 성동리의 도요지 등 옛 조상들이 땀 흘리며 그릇과 기와를 구워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1960년대까지 도기와 옹기(甕器)가 대표적 생활 용품이 되어 그 수요가 늘면서 위 지명의 사기점과 점촌의 재래식 가마에서 사기 그릇과 옹기를 제조하였으나 유기(鑪器)와 양은, 플라스틱, 스텐레스 등 타 소재의 등장과 생활 양식의 변화, 기술인력의 감소, 원료 구득의 어려움 등으로 재래식 요업 생산이 중단되었다. 1978년 제일 늦게 문을 닫은 재래식 옹기점(甕器店)은 요암동 가마인데 여기서는 1년에 4가마(1가마에 장독300~400개씩 생산)의 옹기를 구워냈다고 한다.

도자기(陶磁器)는 일제시대 지금의 대천1동 새터와 대천4동의 흥덕굴에 공장이 세워져서

생활 도자기를 생산하여 왔으며 1960년대 동대동에도 도자기 공장이 생겨 3개소가 운영되다가 1980년대에 모두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업체가 창업과 폐업을 거듭하면서 맥을 이어와 2008년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3) 현대의 도자기 생산

성주면 개화리에 위치한 창포도예(蒼浦陶藝)는 근로자 45명이 근무하는 중견 기업으로 1986년 지금의 대표 박종화(朴鍾和) 씨가 창업하였다. 박씨는 앞서 거론한 흥덕굴 사기 공장을 창업하여 운영해 왔던 박영탁(朴永卓:1968년 타계) 씨의 아들로 가업을 물려 받아 2대째 요업을 이어왔다. 현재는 완전 자동화를 실현한 공장에서 생활 도자기 300여종을 생산하여 백화점과 E-마트 등 대형 매장에서의 진출은 물론 홈쇼핑을 통하여 월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도자기의 제품 생산 공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원료인 흙과 원료를 배합하는 제토(製土) → 원료를 반죽하는 토련(土鍊) →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성형(成形) → 초벌구이 → 손으로 문양을 그리는 핸드 페인팅(Hand painting) → 유약(釉藥)을 바르는 시유(施釉) → 재벌구이 → 무늬 그림을 입히는 전사지(轉寫紙) 붙이기 → 열을 가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상회소성(上繪燒成) → 제품의 포장 및 출하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 된다.

○ 도자기의 제품생산 공정

제토기	토련기	성형	초벌구이	핸드페인팅
시유	재벌구이	전사지부착	상회소성	제품포장

가동중인 업체 현황

(2008년 현재)

순번	회사명	대표자	생 산 품	주원자재	업종번호	용지면적	공 장 주 소	종업원
계	10							173
1	보령전통옹기	이동현	항아리	점토	26912	1,652	주포 봉당 154-1	3
2	홍보요업	최현용	가정용도자기		26211	1,898	천북 낙동 314-1	9
3	보령세라믹	강석철	도자기		26912	1,489	청소 장곡 143-6	13
4	태양주식회사	박승기	가정용도자기		26912	1,400	청소 야현 642	14
5	봉덕도자기	오길수	가정용도자기	장석외	26912	1,527	남포 제석 75	7
6	항남도예	박일양	황토쌀독	황토	26912	2,400	남포 제석 11-1	15
7	창포도예	박종화	생활도자기	도코	26912	3,615	성주 개화 19-1	45
8	주식회사 새암	김승희	생활도자기	소지(흙)	26211	684	대전동 550-10	20
9	한내도자기	조규춘	도자기		26912	1,527	화산동 461-3	17
10	(주)한일세라믹	조대연	가정용도자기		26211	4,107	남곡동 1022-1	30

6) 건설업

보령지역은 1953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대천지구와 남포지구 간척사업과 청천저수지 축조 공사를 동아건설(당시 대표 최준문)이 참여하였고 1984년부터 시작된 남포·부사지구 간척 사업은 대산건설(대표 오장섭)에서 수주하여 시공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공사를 외지 업체들이 시공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 등 개발사업 붐을 타고 보령지역에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활동하였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건설 업체로는 국민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를 건축하던 유성건설(대표 조철원, 당시 근로자 수 45명)과 보령종합경기장, 아파트 등을 건축한 서오개발(대표 신흥식, 근로자수 160명) 신영건설(대표 이강노), 한진건설(대표 김주환) 등이 있어서 건축과 토목분야의 시공을 했다.

건설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2008년 현재)

합 계	측 량 설 계 업 체				시 공 업 체			비 고
	계	건축설계	토목설계	측 량	계	일반건설	전문건설	
273	29	11	5	13	244	22	222	

건설관련 제조업체

(단위 : 개소, 2008년 현재)

계	레몬	아스콘	철구조물	벽돌블럭	아스팔트제품	건설기계장비	목구조주택조경	판넬방음벽	수배전반	기타
31	5	2	4	5	2	5	2	2	2	2

7) 자동차 정비업

보령시의 자동차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1964년에는 총 61대가 등록되었으며 10년 후인 1974년에는 1,047대, 1984년에는 1,785대, 1994년에는 14,865대, 2004년에는 38,204대가 등록되는 등 자동차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자동차 정비업도 그에 비례하여 발전해 왔다. 1950년대의 자동차 정비는 웬만한 것은 거의 운전기사 스스로 정비하였고, 대수선의 경우에만 대도시 정비 공장에 의뢰하는 수준이었다. 당시의 자동차는 미군이 쓰던 화물 트럭, 지프차 등을 버스, 승용차로 개조하여 운행하던 관계로 원동기 등과 마찬가지로 철공소에서 정비 수선을 담당하였는데 보령지역은 광산이 개발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많아 타지역보다 일찍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다.

1960년대 초 김남영(1987년 타계) 씨가 대천동 188번지(대천우체국 부근)에 중앙화물, 중앙여객, 중앙공업사를 창업, 보령지역 최초의 차량운송 정비업체를 운영하였으며, 그 무렵 동대동 835-7번지(후일 중앙화물에서 인수한 현 보령공업사 자리)에도 부산공업사(당시대표 김재수)가 창업하여 영업을 했는데 현대적 자동차 정비업의 시작은 이 무렵이었다. 1970년대 이후 국산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그에 맞춰 자동차 정비업소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단위 : 개소, 2008년 현재)

계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업체수	근로자수	업체수	근로자수	업체수	근로자수	업체수	근로자수
99	248	13	97	4	12	82	139

8) 조선업(造船業)

과거의 조선업은 목수들의 손에 의하여 주로 어선을 건조하는 것이었으나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해운업이 발달하고 어업도 원양어업 등을 위해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조선 소재도 금속과 합성수지(FRP)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보령지역에도 현대적 장비를 갖춘 공장형 조선업체가 등장하여 각종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맡아 하고 있다.

선박 건조·수리 업체 현황

(단위 : 건조능력, 실적-톤, 2008년 현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조능력	근로자수	건조실적	창업년도	비고
대형조선(주)	이경자	주교면 송학리 584	50,000	80	20,000	1990	건조·수리
미산조선공업(주)	한용상	오천면 영보리 351	1,000	9	500	1993	"
여남조선소	이정훈	" " 170	1,000	5	400	1958	"
녹산FRP선박	박원규	웅천읍 구룡리 2-4	150	6	30	1997	"
장은FRP조선소	조종필	천북면 장은리 192-1	20	2	20	2003	"

9) 농업기계 수리업

1970년대 말부터 본격 시작된 농업의 기계화 사업은 농기계 생산업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농기계 수리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농기계의 보급 확산으로 농기계 수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생산업체인 대동공업, 국제기계, LS농기계에서 지역별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일선 농업협동조합에서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사후 수리 봉사를 하고 있다.

업체 현황

(2008년 현재)

업체수	등급별		수리장비(기수/톤수)			수리인력				비고
	소형	중형	호이스트	체인블럭	리프트	계	자격증	경력	보조	
12	5	7	3/6.3	9/18.5	3/7.8	33	15	5	13	

10) 인쇄 · 출판업

인쇄업은 프린트, 활판, 옵셋으로 각종 간행물을 제작하던 것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주 소비층이던 관공서와 일반 단체 기업체 등에서 웬만한 것은 모두 자체적으로 제작 사용하면서 시장이 좁아졌다.

간행물의 형태와 제작 과정 또한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광고 전단지 등을 광고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인쇄업과 광고업을 겸하여 수행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업 체 현 황

(단위 : 개소, 2008년 현재)

읍면동별	계	인쇄사	출판사	비고	읍면동별	계	인쇄사	출판사	비고
계	28	24	4		대천2동	2	2		
웅천읍	2	2			대천3동	8	6	2	
대천1동	13	11	2		대천4동	3	3		

11) 연탄 제조업

연탄은 1960년대 이후 정부에서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임목 연료의 대체수단으로 적극 보급되어 국민 연료로 20여 년간 사용되어 왔다. 특히 보령지방은 연탄 원료인 석탄 산지로서 연탄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연탄을 생산해 왔다.

1980년대에는 총 6개소의 공장에서 연간 5천만 개의 구공탄을 생산하여 충남 서부지역 일대의 소비자들에 공급한 바 있으나 기름 보일러의 보급과 저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연료 교체, 그리고 광산 합리화로 석탄 생산이 중지되면서 연탄 공장들도 문을 닫게 되었으며 청라면의 영보연탄 공장만이 가동 중에 있다.

가동 중인 연탄생산업체

(단위: 면적m², 명, 2008년 현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량/년천개)	원자재	용지면적	종업원	비고
영보연탄	김용섭	청라면 의평리 238	연탄/4,000	무연탄	5,004.0	7	

12) 머드(MUD) 화장품 생산

보령 머드 산업의 시작은 1994년 5월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1개월여 앞둔 시기에 당시 대천시장(박상돈)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진흙(MUD)을 이용한 이벤트 행사를 해 보라는 지시에서 발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담당 공무원이 학계에 자문을 하게 되었고, 이에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유용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해 대천 해수욕장에 12평, 8평짜리 2동의 진흙 맛사지 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것이 보령 머드산업의 시초였다. 이어서 화장품 개발을 추진하여 (주)태평양과 제휴하여 1996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화장품 원료 규격허가를 받아

그 해 6월 드디어 보령산 머드화장품인 머드팩, 보디클렌저, 비누, 샴푸가 출시되었다.

보령시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머드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여 2008년 현재 국내 우수 화장품 생산업체에 원료인 머드 파우더를 공급하여 모두 19종의 화장품을 OEM방식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고, 시 직영으로 파우더와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과 머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머드를 알리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보령머드축제는 이제 세계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머드화장품 생산 판매 현황

(2007년말 현재)

생산업체수 (개소)	화장품종류 (종)	판매망 (개소)	판매액 (백만원)	시 자체 운영생산				비고
				비누	파우더	체험관	종사원	
6	21	127	2,179	10만장	5톤	579.9평	23	